

일부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조사

김일희, 채진욱, 김준수, 이근미, 정승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일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및 상병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대구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와 대구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인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차 건강검진 항목을 검사하였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대구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522명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건강인지도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6%이었다. 건강검진 판정 결과 질환의 심 판정을 받은 수는 간질환 의심 42명(9.5%), 고지질혈증 의심 24명(5.4%), 신장질환 의심 12명(2.7%)순이었다.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에서 항원/항체 모두 음성으로 예방 접종이 필요한 자는 347명(78.5%)이었다. 건강인지도와 건강검진 판정 결과 사이의 연관성은 없었다. 진료기록지 분석을 통한 상병양상의 조사에서는 신체계통으로 분류하여 근골격계(21.0%), 위장관계(20.6%), 호흡기계(13.1%), 피부과적 증상(11.3%)의 순서였다.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의 부족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조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병양상이 성인병 질환보다는 작업 및 생활 환경과 관련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검사 항목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중심단어: 외국인노동자, 건강상태, 집단검진